

**Q1. 2018년 사업 성과 중에서 제일 알리고 싶은 '작은변화'는 무엇인가요?**



한태운  
변화사업국 국장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의 시민 활동을 지원하여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원해서 만든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은 참고 사례가 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미성년자 납부의무 제도 개선'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모두 기부자님들과 함께 만든 '작은변화'입니다!

**Q2. 2018년에 진행한 캠페인 중에서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김남희  
1%나눔팀 간사

인천서흥초등학교 친구들이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기부했을 때입니다. 우토로 역사를 알리기 위해 손바느질로 인형을 만들고 친구와 후배들에게 우토로를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Q3. 2018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기부자님의 말은 무엇인가요?**



두은정  
기부자소통팀 팀장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리라 믿는 단체를 찾아 능동적으로 기부하고 싶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Q4. 2018년 아름다운재단의 조직 문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박초롱  
인재개발팀 팀장

'오신 날'이라는 축하 제도가 생겼습니다. 간사들은 '재단에 처음 온 날'을 기념하며 선물과 축하증서를 받습니다. 축하하는 문화가 구성원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Q5. 2019년 아름다운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권찬  
사무총장

제게는 '성찰'입니다. 2020년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성년이 됩니다. 그동안 아름다운재단은 성실하게 많은 일을 했지만 자신만만해하지 않고 앞으로의 성장을 준비하며 스스로 돌아보려 합니다. 이제 사회 변화의 속도는 재단이 추구하는 변화의 속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그다음 해의 키워드는 '다시 도전'이 될 것입니다.

**Q6. 아름다운재단 기부자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이혜진  
기부자소통팀 간사

기부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웃과 사회를 위해 꾸준히 참여하는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수미  
협력사업팀 간사

아름다운재단 기부자님들은 항상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기부자님들이 계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믿어요. 감사합니다!